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29일 국악원 예음헌에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손 이석(사단법인 황실문화재단 총재)씨를 초대해 국악콘서트 다담을 연다.

이날 공연에선 우리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황손 이석의 삶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화려하면서도 정갈한 궁중 음악과 춤을 통해 왕실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고종 황제의 손자이자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했던 의친왕의 열한 번째 아들인 이석은 의친왕 서거 후, 궁에서 쫓겨나고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월남전에 참전해 부상을 당했다. 이후 가수로 데뷔해 '비둘기 집' 음반을 발표하며 인기를 얻었지만, 1979년 혼란한 정국 속에서 신군부에 의해 미국으로 쫓기듯 건너가 불법 체류하며 또 다시 생활고를 겪었다.

그는 1789년 이방자 여사와 덕혜 우주의



▶ 국립민속국악원, 마지막 황손 이석 초청 콘서트

민족의 역사 알리는데 노력하는 이석의 이야기와 함께 할 연주자로 신용문 명인·국악연주단 출연 공연은 29일 국악원 예음헌서 열어

◀ 대한제국 마지막 황손 이석

장례식 참석차 잠시 고국에 들렀다가 '내 조국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결심에 영구 귀국했다. 현재는 전주한옥마을 송광재에 머물며 강연을 통해 황실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로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

다. 황손 이석의 이야기와 함께 할 연주자로는 소리아트센터 대표이자 한범수류 대금산조 보존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신용문 명인과 국악원 국악연주단이 출

연한다.

무대에서 들려줄 '청성곡'과 '상령산'은 대나무 숲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처럼 정갈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는 곡으로 정악 대금의 정수를 담고 있다. 또 양금과 병주로 선보이는 '천년만세'는 봄날 솟아오르는 새싹처럼 상큼함을 전한다.

이와 함께 국악원 국악연주단의 무대로는 정재(궁중무용) '춘앵전'과 '궁중검무'를 선보인다. 춘앵전은 음악과 춤에 관심이 깊었던 효명세자가 어머니의 생신 잔치를 위해 봄날에 피꼬리가 버드나무 사이를 노니는 모습을 보고 만든 것으로 우아한 춤사위가 특징이며, 궁중 검무는 여성이 추는 춤이지만 역동적이고 활달한 춤사위를 펼친다.

공연은 전석 무료이며, 예약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에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2분기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 작품 모집

(재)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017년 2분기 전주 영화 후반제작지원 사업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전주 영화 후반 제작지원 사업은 영화제작사의 색보정, 디지털 마스터링과 음향마스터링스튜디오 등 보유시설을 활용하여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디지털 영화영상물의 제작지원을 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디지털 영화영상 관련 연출 감독 및 제작사로 제작 준비 중이거나 후반작업 진행 예정인 영화영상물(독립 중 단편영화, 저예산예술영화, 영상 다큐멘터리 등)로 전국의 독립영화와 영상물이다.

2분기에는 총 3편을 선정(색보정 & 사운드 2편, DCP 1편)해 후반제작지원을 한다.

신청인별 1개 작품만 신청 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오는 4월 10일 오후 5시까지다. 단, E-mail 신청만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완주문화재단 누에, 올 레지던스 입주작가 모집

복합문화지구 누에(nu-e)는 4월 5일까지 2017년 레지던스 프로그램 '예술+공방 스테디움'의 입주작가를 모집한다.

'예술+공방 스테디움'은 순수미술과 공예기반 작가들을 위한 레지던스로 단순한 창작공간 지원을 넘어 전시·비평가 매칭 및 다양한 기획과 지원을 통해 입주 작가들의 창작 역량을 키우는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다.

특히 올해는 입주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모집해 입주 작가들이 보다 편리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 작가로 선정되면 매달 60만원 내외의 창작지원비와 재료비가 지급된다. 또한 창작스튜디오와 숙박시설 외에 공동창작공간(목공·섬유·금속·도자 작업실 등)이 제공된다.

지원자격은 순수미술(공예포함) 작가로 마감일까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http://www.wfac.or.kr/>)에서 지원서류를 내려 받아 이메일(openspace.nue@gmail.com)로 접수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내달 7일 '달의 여인 벚꽃길 거닐다' 특별공연

정음을 대표하는 가사문학의 효시 상춘곡과 백제가요 정음사를 배경으로 벚꽃맞이 "달의 여인 벚꽃길 거닐다"특별공연을 4월 7일 오후 5시에 정음사예술회관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정음사국악단(총감독 왕기석)에서 기획한 작품으로 시민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이번 작품 "달의 여인 벚꽃길 거닐다"특별공연은 백제가요 정음사와 가사문학의 효시 상춘곡에 터잡은 정음의 정서와 정기를 벚꽃이 흐드러지는 좋은 계절에 시립 정음사국악단의 전통음악과 몸짓으로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 강산 구석구석에 흩어뿌리는 모습이 표현된 재미있고 수준 높은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음=김대환 기자

네 남녀의 만남... 사랑 그리고 질투

호남오페라단 '버섯피자' 28일 익산소리문화예회관에서

호남오페라단(단장 조장남)은 익산신문사 후원으로 기획공연 '버섯피자'를 28일 오후 2시와 7시 익산소리문화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시모어 바랍이 작곡한 '버섯피자'는 19세기 이탈리아를 배경으로 일어나는 네 남녀의 만남·사랑·배신·질투·증오·죽음을 주제로 현대 사회상을 그린 블랙코미디다.

이름답고 예술성 넘치는 이탈리아의 벨칸토 선율로 전개되는 작품은 생동감 넘치는 연기와 풍부한 희극적 요소가 더해져 오페라 초보자들도 쉽게 즐길 수 있다.

조승철(극단 하늘 대표)이 연출을, 이일구(호남오페라단 상임지휘자)가 지휘를 맡았다. 무대에는 불꽃무아 역에 허희경(체코 브루노국립음악원 외래교수), 스크르피오 역에 김재명(예원예술대학교 교수), 포비아 역에 손정아(경북대학교 외래교수), 포르마조 역에 김동식(군산대학교 외래교수)이 오른다.

공연 티켓은 VIP석 5만원, R석 3만원. /정해은 기자

완주삼레문화예술촌 VM아트미술관(관장 이기전)은 VM프로젝트-15 '형상과 빛-The shape and Light'을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VM아트미술관의 15번째 기획전이자 2017년을 맞이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전은 아름다움이란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의 차이임을 바탕에 두고 있다.

또한 이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삼레문화 예술촌에서 작가들이 바라본 희망과 빛과 형상은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삼레문화예술촌 '형상과 빛' 전, 5월 31일까지

특히 현대적 감성과 감각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국내의 미디어아티스트 및 설치예술작가 6인(강효명, 이돈아, 이정주, 이효문, 이후창, 조영철)이 희망과 빛을 형상으로 풀어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다.

강효명 작가의 작품 '仁義禮智信'은 세상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함께 살

전해 나가기를 권유하는 캠페인 성향의 실천 프로젝트 작업이다.

이돈아 작가의 작품 '영화(榮華)'는 조선시대의 김상화를 모티브로 삼고 있다.

이정주 작가의 작품 '교감'은 절제된 명료함 속에서 강렬한 에너지를 표출하고 있으며, 이효문 작가는 사람, 그리고 공간을 주제로 하고 있다.

이후창 작가의 작품 'ILLUSION'은 작가

가 '나'라는 진정한 실체를 투명한 유리질로 속에 담아내며 그래서 나는 투명해졌는가, '나'라는 실체는 더 또렷해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밖에 조영철 작가의 '도시를 위한 네 발짐승'은 자연과 야생동물, 그리고 인간이 함께 공존해야 할 지점들은 고착화된 개념이 아니라 이동을 통해 언제나 새롭게 생성되고 정서적인 교감을 만들어내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의미가 생성됨을 말하고 있다. /원주=이종복 기자

2017.4.7(금) ~ 4.12(수) 6일간 정음천변어린이아츠클럽장 및 벚꽃로 일원

개막식 및 축하공연 4.7(금) 18:30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4.7(금) ~ 4.9(일)
 벚꽃 버스킹, 버블쇼, 키다리 배에로 풍선마임, 석고마임 캐릭터 인형탈, 이벤트 존, 봄노래 존, 로맨틱 포토존

벚꽃 야간 경관 조명 4.1(토) ~ 4.16(일)
 제56회 전라예술제 4.8(토) ~ 4.12(수)
 제13회 자생화전시회·제6회 자생차 페스티벌 4.7(금) ~ 4.12(수)
 체험, 간식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4.7(금) ~ 4.12(수)

차량통제안내 : 4.7(금) 22:00 ~ 4.9(일) 22:00
 -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 정주교 ~ 정동교(1.2km)

초대가수 공연

정주·조연비/오대성/양재동

주최·주관 | 정음시 JEONGEUP-SI
 문의처 | 정음시청 관광개발과 539-5203